

《루브르는 프랑스 박물관인가》 이보아 지음 | 민연 | 288쪽 | 값 15,000원



이국 땅의 우리 문화재들,  
 ‘문화재 약탈과 반환의 역사’

도재기 | 경향신문 문화부 기자

신라의 금관은 많은 이야기를 간직하고 있다. 그 금관을 통해 우리는 1,000여 년 전 이 땅에 살던 사람들의 미적 감각이나 공예 기술의 수준을 알 수 있다. 나아가 당시 세상을 보는 신라인들의 가치관도 들을 수 있다. 어린이가 주먹만한 연적硯滴, 우리는 조선시대 사대부들의 취향과 그것을 빚어낸 도공陶工의 숨씨, 마음씨를 느낄 수 있다.

문화재는 역사와 문화의 ‘보물창고’다. 그 문화재로 인하여 나라와 민족의 뿌리가 드러나고, 정체성의 큰 그림이 그려진

다. 문화재에 담긴 역사와 문화를 읽어냄으로써 비로소 우리는 우리로 존재한다.

우리의 그런 문화재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손을 떠나 있다면, 언제 어떻게 이 땅을 떠날지도 모르게 이국땅의 박물관, 미술관, 개인 컬렉션에 놓여 있다면? 학계의 추정에 따르면, ‘해외 소장’ 우리의 문화유산은 20개국 7만4,500여 점에 달한다. 사립미술관이나 개인컬렉션을 조사할 경우 그 수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학계는 본다. 지난 98년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본이 3만1,000여 점, 미국이 1만5,000여 점으로 많이 소장했다. 일제 강점기, 미 군정기 등 격동의 근현대사와중에 이들 문화재는 약탈당하기도 하고, 우리가 미처 그 가치를 몰라 그냥 내주기도 한 것들이다. 이 문화재들이 해외에서도 연구·조사돼 빛을 본다면 그나마 다행. 아직 우리가 존재 여부도 모르는 숱한 문화재들이 세상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

《루브르는 프랑스 박물관인가》는 세계적으로 벌어진 문화재 약탈과 반환의 역사를 흥미롭게 다뤘다. 좀 더 깊게 보면 문화재의 중요성, 나아가 해외 소장 우리 문화재에 대한 더 큰 관심을 촉구하는 책이다. 개별 문화재의 아름다움, 의미 등을 분석해 ‘한국의 미’를 일깨우는 기존 문화재 관련 책들과는 차별화된다.

저자는 문화재를 둘러싼 ‘문화 선진국’들의 비열하고 치졸한 다툼과 약육강식의 논리, 잃어버린 문화재를 되찾기 위한 약소국들의 치열한 투쟁, 여기에 해외를 떠도는 우리 문화재와 반환실상, 그리고 프랑스국립도서관 소장의 외규장각 고문서 반환협상의 문제점 등을 담아낸다. 이는 저자 이보아 교수(추계예술대)의 이력과 무관치 않다. 이 교수는 국내에 몇 안 되는 박물관경영학 분야의 학자로 유학시절 국제적 문화재 반환 문제를 다룬 박사학위 논문을 썼다.

책은 우선 ‘인류의 보물’들을 소장한 프랑스, 영국의 실체를 파헤친다. 대영박물관과 루브르는 매년 500만~600만 명의 사람들이 들르는 곳으로 이들 나라의 자랑이요, 자부심이다. 그러나 소장 문화재들의 상당수가 약소국으로부터 약탈한 것임을 저자는 풍부한 사례들을 통해 보여준다. 대표적으로 대영박물관의 자랑인 ‘엘긴 마블스’는 그리스 파르테논 신전을 장식했던 대리석 예술품이다. 이는 19세기 초 터키주재 영국대사인 엘긴이 터키 지배를 받던 그리스로부터 빼돌린 것이다. 대영박물관에는 이밖에도 그 유명한 이집트의 ‘로제타 스톤’, ‘스핑크스 수염’ 등 각국의 문화재도 소장중이다.

루브르 박물관도 비슷하다. ‘문화재 약탈자’로 이름난 나폴레옹이 이집트 원정 당시 빼앗은 전리품이 상당수이다. 그는 1793년 이집트 원정길에 오르면서 군인 외에 고고학자, 화가, 사서 등 민간전문가 175명을 데려갔고, 그들을 앞세워 이집트 곳곳을 뒤져 숱한 문화재를 챙겼다. 물론 프랑스도 이집트의 반환요청을 무시한다. ‘문화제국주의’자들의 추악한 면은 이집트 상형문자 해독의 열쇠가 된 ‘로제타 스톤’, ‘스핑크스의 수염’이 단적으로 보여준다. 당초 로제타 스톤은 나폴레옹군이 챙긴 유물. 하지만 당시 힘을 앞세운 영국이 빼앗았다. �핑크스의 수염

도 나폴레옹군이 ‘거만하다’며 떨어뜨렸고, 결국 영국이 차지했다. 문화재 약탈사를 이야기하며 나치의 히틀러를 빼놓을 수 없다. 히틀러는 아예 전리품수집 특수임무를 담당한 ‘ERR’이라는 조직까지 운영, 유럽과 레닌그라드 등 500개 이상의 박물관에서 2만 점이 넘는 문화재를 약탈했다. 제국주의 시절 식민지에서 빼앗은 문화재들로 채워진 루브르와 대영박물관. 저자는 과연 ‘루브르는 프랑스 박물관인가’ 하고 묻는다.

국제 문화재계는 문화재를 되찾고자 하는 나라와 돌려주지 못하겠다는 나라 사이에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문화재가 태어난 원산국에 있어야 한다는 주장은 ‘문화민족주의’로, 문화재는 인류전체의 보물이므로 더 많은 사람이 보고 관리가 잘되는 곳에 있어야 한다는 주장은 ‘문화 국제주의’로 나뉜 것. 저자는 자신들의 문화재는 문화민족주의 논리를 내세워 반환받으면서, 약소국들의 요구는 문화국제주의를 내세워 거부하는 일부 국가들의 논리를 신랄하게 비판한다. 저자는 이와 더불어 다양한 반환사례 등을 소개한다. 특히 덴마크에 지배당한 아이슬란드가 정부와 국민들의 일치된 각고의 노력 끝에 문화재를 반환받은 사례는 일제 강점기를 거치며 일본에 흘러들어가는 우리 문화재를 생각나게 한다.

책에서 더욱 눈길을 끄는 것은 일본, 미국 등에 의한 우리 문화재 약탈사례와 세계를 떠도는 우리 문화재들의 실상이다. 그렇지만 책 전체에서 이와 관련된 내용은 상대적으로 분량이 적어 아쉽다.

저자가 이 책을 통해 진짜 말하고픈 것은 ‘왜 모두들 말이 없는가’라는 부제의 마지막 장일 것 같다. 지난 1993년부터 시작된 우리 정부와 프랑스간 외규장각 고문서 반환협상의 과정, 문제점을 상세히 전한다. 특히 외규장각 고문서와 동등한 가치의 국내 소장 고문서를 제공하고 외규장각 고문서를 받아오는 ‘등가교환’의 문제점을 날날이 지적한다. 그리고 외규장각 고문서의 반환협상이 해외소장 문화재 반환협상의 전례가 된다는 중요한 의미 등을 전하며 해외 문화재에 대한 정부와 시민들의 관심을 요청한다.

문화재 약탈사 등 흥미로운 읽을거리와 함께 우리 문화재, 해외소장 문화재에 대한 인식을 확 넓혀준다는 의미에서 이 책은 썩 괜찮은 교양서다. **한**